

K-기업 글로벌 영토 확장

# ‘더현대 글로벌’ 일본 상륙 현대百貨, 亞시장 공략 박차

도쿄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홍콩·대만 등 주요도시 매장 확대

현대백화점이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에 ‘더현대 글로벌’의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다.

현대백화점이 10일 일본 럭셔리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중심지인 도쿄 오모테산도의 복합쇼핑몰 ‘도큐플라자 오모카도’에 ‘더현대(THE HYUNDAI AI)’를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 백화점이 일본 핵심 상권에 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현대 글로벌은 K패션·뷰티·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현대백화점은 2024년 도쿄 파르코 시부야점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정규 매장과 일본 온라인 패션 플랫폼 ‘누구(NUGU)’ 내 더현대 글로벌관을 운영하며 현지 사업을 확대해 왔다.

이번 매장은 총 620㎡(약 187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패션·뷰티·식음료(F&B)·지식재산권(IP) 콘텐츠 등 7개 브랜드와 2개의 팝업 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룹 TWS가 공식 앰배서더로 참여한다.

매장 인테리어는 서울의 라이프스타일과 쇼핑 문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K패션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일본 2030세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설정했다.

패션존에는 코이세이오038, 로라로라, 더블 러버스, 히에타, 스탠드오일 등이 입점한다. 스탠드오일은 더현대 글로벌을 통해 일본과 대만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바 있다.



더현대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 전경. /현대백화점그룹

식음료와 IP 콘텐츠도 함께 선보인다. 더현대 서울의 인기 커피 브랜드 카멜커피가 일본 첫 매장을 열고, K팝·드라마·캐릭터 관련 상품을 선보이는 플랫폼 위드뮤도 일본 시장에 처음 진출한다.

매장 내에는 상시 팝업 운영을 위한 ‘팝업 아이코닉(ICONIC)’과 ‘팝업스퀘어(SQUARE)’도 마련됐다. 개점을 기념해 오는 22일까지 배우 변우석의 아시아 투어 팬미팅 팝업스토어 ‘시크릿 라이브러리(The Secret Library)’가 운영되며, 다음 달 9일까지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락스클럽의 일본 첫 오프라인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매장을 계기로 더현대 글로벌의 아시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거점에 플래그십 매장 10여 곳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농심, 美 현지 마케팅 활발 신라면 등 브랜드 입지 강화

뉴욕 미쉐린 레스토랑 ‘아토보이’ 협업  
대규모 체험 행사·전시 등 K-푸드 소개

농심이 미국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과 한국문화원 협업을 통해 신라면을 앞세운 현지 마케팅을 확대한다. 미쉐린 스타 셰프 레스토랑과의 협업부터 한국식 PC방 문화를 접목한 체험 행사까지 이어가며, 미국 주류 시장에서 K-푸드 대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한다.

농심은 7월 한 달간 뉴욕의 한식 레스토랑 ‘아토보이(Atoboy)’와 협업해 신라면을 활용한 한정 메뉴 ‘신라면 팬케이크’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출시 40주년을 맞은 신라면과 개점 10주년을 맞은 아토보이의 협업으로 한국식 전을 모터브로 한 메뉴에 신라면의 매운맛과 감칠맛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농심은 오는 28일 뉴욕 라디오 파크에서 열리는 아토보이 10주년 기념 행사에도 참여해 ‘신라면 분식’ 부스를 운영하고 신라면과 신라면 톱마를 현지 셰프와 미식 관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농심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뉴욕한국문화원과의 협업을 이어간다. 내달 22일까지 문화원 내 한국식 PC방 콘셉트 공간에 ‘신라면 분식’을 운영하며 신라면컵과 스낵 ‘뽕부장’을 전시하고, 영화제와 K팝 행사 등 주요 문화 행사에 맞춰 시식 행사도 진행한다. 게임을 하며 라면과 스낵을 즐기는 한국의 PC방 문화를 현지에 소개한다는 취지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뉴욕한국문화원과 함께 진행한 ‘Han River in NYC with SHIN RAM



농심 아토보이 협업 메뉴 ‘신라면 팬케이크’ /농심

YUN’에 이은 두 번째 협업이다. 농심은 뉴욕 내 대표적인 한류 거점을 활용해 현지 소비자와 글로벌 K-컬처 팬들에게 브랜드 경험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농심은 미국 시장에서 다양한 현지 마케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대규모 체험 행사와 옥외광고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뉴욕 JFK공항 제1터미널에 ‘신라면 분식’ 매장을 열었다. 올해 1월에는 미국 ABC의 인기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 신라면이 단독 예피소드로 소개되기도 했다.

농심 관계자는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신라면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K-푸드 대표 브랜드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백화점, 명품·패션 등 판매 호조... 2분기 실적전망 ‘맑음’

원화 약세 지속... 외국인 매출 증가세  
금융정보업체, 수익성 큰 폭 개선 전망

내수 소비 침체에도 백화점계가 2분기 호실적을 예고했다.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 확대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원화 약세에 따른 명품 수요 확대가 뒷받침되면서 백화점 3사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백화점 3사는 고마진인 명품과 패션 부문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반적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신세계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조7960억 원, 영업이익은 98% 급증한 1494억 원으로 추정했다. 롯데쇼핑 역시 매출 3조5612억 원, 영업이익 1099억 원으로 각각 6%, 170% 늘어나 큰 폭의 이익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현대백화점은 가구·메트리스 자회사 지누스의 부진이 반영되면서 매출 1조495억 원(-2.9%), 영업이익 852억 원(-1.8%)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백화점 본업은 의류 판매 호조와 감가상각비 감소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호실적의 핵심 동력은 국내 고소

득층의 소비 여력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소비 증가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964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지출도 6.9% 늘어난 556만6000원을 기록했으며, 의류·신발 지출은 12.0% 증가해 소비 여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비는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빠르게 성장해 백화점 실적을 떠받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방한 관광객은 4월 202만 7860명, 5월 194만 5809명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대비 18.8%, 19.4%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 집계한 외국인의 국내 카드 소비액(관광총소비)도 4월 1조9924억 원, 5월 2조1222억 원으로 월간 기준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각각 46.5%, 67.1% 증가한 수치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최저임금 쟁심의 막바지 ‘1만490원’ 이상 유력

내년(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법정 심의 시한을 넘어선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오늘 중 마무리하자”며 노사 양측 모두에 양보를 요구했으나,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시각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현재 노사 간 격차는 지난 회의의 거처며 860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노동계의 7차 수정안은 1만1350원(올해 대비 10.0% ↑), 경영계 7차 수정안은 1만490원(1.6% ↑)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1만490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이날 회의에서 수정안을 최소 3차례 더 제시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협상에서 노사가 더 이상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사는 이 구간에서 최종안을 내 합의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토대로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김서현 기자 seoh@



## 금융권 가계대출 8.3조 ↑... 주담대 증가폭 커져

주택거래 증가·집단대출 실행 등 영향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보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조5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8조3000억 원 증가

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6000억 원 늘며 전월(6조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2조1000억 원에서 2조9000억 원으로, 정책성 주담대는 1조 원에서 1조4000억 원으로 각각 증가폭이 커졌다. 반면 기타대출은 3조7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7000억 원 증가해 전월(2조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상호금융권은 8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고, 보험은 9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6000억 원 증가에서 2000억 원 감소로, 저축은행은 2000억 원

증가에서 3000억 원 감소로 각각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6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기존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했다”며 “다만 은행권의 신용대출 자율관리 조치 영향으로 기타대출 증가 규모가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세종=한용수 기자 hys@

